

A Challenge about Lovelessness 사랑 없는 모습에 대한 도전 (고전 13 장)

A Rebuke Mistaken for Romance

Well, 1 Corinthians 13 is certainly one of the most beautifully worded chapters on love in the whole Bible...That's why it is not only one of the most well known passages in 1 Corinthians, but also the most popular of readings for *weddings* around the world.

Though when we look more closely at what the Apostle Paul is saying & the context into which he says it.....we soon realise that the last thing on Paul's mind is to provide a fitting piece of prose for a romantic occasion. His word isn't so much a 'celebration of love' as a sobering rebuke about the Corinthians' 'lack of love.'

It's also the Lord's challenge to the church — to us here in Australia — nearly 1970 years later about Lovelessness — a lack of love in our hearts — that shows itself in a lack of love in the things we do or don't do.....

Like many of these challenges, our default can be to think that being unloving is not an issue for me or even for us — it's other people or churches who are unwelcoming.... But we need to let God's word expose the state of our hearts so that we can receive His grace to change us to be more loving.

I heard an old friend preach on this passage where he substituted his own name in place of love from v4 to say ... 'Mike is patient & kind; Mike does not envy or boast; Mike is not arrogant or rude; Mike is not irritable or resentful...' Well, like Mike, when I substitute my own name it doesn't take long to realise how impatient, unkind, envious, boastful, arrogant, rude, irritable & resentful I can be....

로맨스로 착각함을 꾸짖음.

고린도전서 13 장은, 성경 전체에서 사랑에 대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장입니다...이런 이유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13 장이며, 결혼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13 장은 어떤 로맨틱한 상황을 위한 구절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이 없음을 꾸짖기 위한 배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꾸짖음은,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랑 없는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마음에도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더더욱 사랑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드러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의 친구가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오늘 구절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넣은 적이 있습니다...예로 "마이클은 오래 참고, 마이클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마이클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마이클과 같이, 저 또한 제 이름을 대신 넣어 보면, 이런 대조를 통해 제가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하며, 온유하지 못하며, 질투하며, 자랑하며, 거만하며, 무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In our struggle with sin...particularly the challenge of lovelessness...the word today shows us where we lack in the virtues that mark a loving person...how settled we can be in the vices that reveal an unloving person. God doesn't do that to leave us condemned...but by grace, to depend all the more on our perfectly loving Lord & Saviour Jesus....to know & to grow in love

The Priority of Love (1-3)

V1, 'If I speak in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but have not love, I am a noisy gong or a clanging cymbal. And if I have prophetic powers, and understand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if have all faith so as to remove mountains,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If I give away all I have, and if I deliver up my body to be burned, but have not love, I gain nothing.'

Last week we saw that some of the Corinthians were missing out at the Lord's supper due to the thoughtlessness of the elites. In chapter 12 Paul begins to address yet another problem — selfishness & division that had come about in relation to spiritual gifts.

Instead of using their God-given gifts to build one another up in unity, their gifting had become a catalyst for more boasting & division. They'd begun to esteem some who had certain gifts over others whose gifts they considered to be of a lower order. The error was that as they wrongly devalued the gift, they were also disregarding the person/people with those gifts. At its heart, the error was lovelessness — love 'deficient'

Paul announces the corrective in v31b, '(And) I will show you still a more excellent way.'

우리 죄와의 씨름 가운데, 특별히 사랑 없는 모습에 대한 도전 가운데...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 어느 덕목이 부족하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드러내는 악습에 우리가 얼마나 안주 하는지 나타냅니다...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런 사랑 없는 모습에 좌절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의지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우선순위 (1~3 절)

1~3 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난주 설교를 통해 우리는, 몇몇 배려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몇 사람은 성찬에 참여 할 수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 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지적합니다...이는 영적 은사에 잘못된 이해 로부터 온 이기심과 또 다른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연합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자랑과 분열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은사에 순위를 매겨, 어떤 특정한 은사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들이 다른 은사들은 더욱 열등한 것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 또한 더 열등한 존재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12:31 절에서 제시합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새번역)

So Paul begins by a series of hypothetical first-person appeals.... 5 times in 3 verses he says, 'If I' in relation to possessing the key gifts followed up by the nullification of the gift when love is absent:

'If I speak in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
 'If I have prophetic powers & understand all mysteries...'
 'If I have all faith....to remove mountains'
 'If I give away all....& deliver up my body to be burned'

Notice the second aspect of each gift takes the gift to a maximum display of glory...
 giving away all — body to be burned...
 having faith — removing mountains
 having prophetic powers — understanding all mysteries.....
 tongues of men — tongues of angels

Tongues were a particular manifestation at the centre of their boasting. Paul spends most of chapter 14 correcting its misuse & abuse.

We aren't to understand the gift of an angelic language as something the Spirit had given the Corinthians...It's simply Paul's way of expressing the hypothetical height of that gift...So he can make the point that no matter how incredible or dazzling the gift...if I'm devoid of love, v1, I'm hollow — '...a noisy gong or clanging cymbal' or v2, 'I'm nothing' — or v3 'I gain nothing

그래서 바울은 가상적 1 인칭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3 절에서 5 번이나 “내가 만약”이라 말함으로, 어떤 중요한 은사를 가졌다 할 때, 이런 은사를 사랑 없이 행함으로 무효화 됨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가 만약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만약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만약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만약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 은사의 둘째 부분에서 이런 은사의 가장 큰 영광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모든 것을 주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영광은 - 내 몸을 불사름의 모습이며
 믿음을 가짐의 가장 큰 영광은 -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며
 예언 할 수 있는 은사의 가장 큰 영광은 -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이고
 사람 방언의 가장 큰 영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에게 방언의 은사는, 여러 은사 가운데 가장 자랑할 만한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 장의 대부분을 이런 방언의 이해를 바로잡는 데 사용 합니다.

여기서 “천사의 말”을 언급했다고 해서, 성령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은사를 정말로 주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이는 그저 이 은사의 가상적 높이에 대한 표현 방법일 뿐이며...이는 그 은사가 아무리 놀라운 은사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 (1 절) 와 같으며, “아무런 유익도 없다”(3 절) 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The word Paul uses throughout this chapter is 'agape' — it's the unconditional, other-person centred love — sometimes translated as 'charity' ... it's the love of God the Father in Jesus (John 3:16). The point of Paul's opening about this love is to stress the priority of love in life.

Theoretically we would agree....practically our own priorities can sometimes tell a different story.

Why do celebrities gain such a following? It's not primarily because the world values love. It's because they have something that stands out — the way they look or sing or act....their ability to make us laugh.

What do churches in many (perhaps the majority of?) places around the world regard ultimate value in gifted leadership? The preacher who can entertain...the leader who can draw a crowd? If we're honest.... like the Corinthians at times we can have a tendency to value giftedness over loving character.

We've been more influenced by the world than we might want to acknowledge & less impacted by the love of Christ than we tend to think.

A Portrait of Love (4-7)

v4, 'Love is patient and kind; love does not envy or boast; it is not arrogant or rude. It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it is not irritable or resentful; it does not rejoice at wrongdoing, but rejoices with the truth. Love 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이 13 장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이는 조건 없이 사랑하며, 타인 중심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그리고 이 단어는 때로 **charity** (자선)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16). 그리고 사도 바울이 13 장에서 이런 사랑을 언급함으로 시작함은, 삶 가운데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머리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유명 연예인들을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일까요? 이는 이 세상이 사랑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가 아닙니다. 이는 이들의 외모나, 노래, 연기를 통해, 특출나게 눈에 띄는 것이 있기 때문이며...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들의 능력 때문에입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는 재능있는 리더십의 궁극적인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을 궁극적 가치로 여기지 않나요?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자면, 우리는 사랑하는 성품보다, 재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에 대한 묘사(4-7)

4~7 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Here we see that Paul gives us a portrait or picture of love by telling us what *it is* & what *it isn't*. The striking thing in these verses is that each of the virtues that Paul commends in v4 & each of the vices that Paul negates in v's 4 & 5 are verbs — they're words of action. That tells us that love is not abstract — that means, it's not an idea or a feeling — it's a multifaceted action.

The sense firstly is that 'love is forbearing & is active in showing kindness'...Paul's intent as the Corinthians received this portrait of love, would have been for them to reflect on their own lovelessness — seen in their impatience & unkindness...at least towards those they considered were less important.....those with lesser gifts those who were the 'have nots' at the Lord's Supper

Nor does love envy, boast, be arrogant (puffed up) or rude...The Corinthians wouldn't have been able to hear this description without recalling their own 'puffed up' 'self-inflated' views in the context of division, their love for the cleverness of the orators of the culture & the proud imposters of the early chapters.

The last word, translated 'rude' conveys anything that might be a source of shame. The Corinthians were meant to remember their condoning of the sexually immoral man — such toleration was anything but loving when his salvation & the purity of the church was at stake.

V5 continued, 'It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it is not irritable or resentful;' The situation in the context of the Corinthians was their resentment leading to lawsuits in chapter 6. Though their irritation had gone to the awful extreme....the same elements of lovelessness that were at work in the Corinthian church remain a challenge for us today.

이제 여기서 바울은, 무엇이 사랑이며,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에 대해 말씀함으로 참된 사랑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꽤 큰 사실은, 4~5 절에서 사랑에 대해 묘사하는 모든 단어는 “동사”라는 사실입니다. 말인즉, 사랑은 어떤 ‘행동’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추상적이거나,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며, 다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사랑으로 정의되는 첫 행동임을 보게 됩니다...바울이 이런 행동을 통해 사랑을 정의함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통해 사람을 차별하고, 성찬에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그들의 사랑 없는 행동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 다음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열 가운데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던 자신들의 모습과 화려한 웅변가들을 좋아하고 따르는 당시 잘못된 문화에 대해 살펴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무례”라는 단어는, 수치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 성적 범죄를 묵인하고 있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죄를 묵인함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결코 사랑 가운데 하는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5 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를 6 장의 배경에서 이해할 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를 고소함으로 매우 성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화가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사랑 없는 모습은, 오늘 교회 안에도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How many of us feel the need to win a dispute at all costs...often because we are easily provoked or irritated ('having a short-fuse')...sometimes because we're holding onto some past wrong so we can hold it against the other person? At times we can even take pride in our 'lovelessness'we might say things like, 'I can forgive, but I'll never forget' ... or we try & excuse ourselves 'I just get irritated when this happens....' Or we glory in our stubborn commitment to have the last word & win an argument?

Love doesn't store up another's evil to remind them about it at a later time...nor is it irritable or self-seeking...Notice from v6 rather than rejoicing at wrong, it rejoices in what's true...Love 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Paul is saying that love delights in the truth even while it bears (= both absorbing damage like a shelter & supporting a load like a structural beam)...believes (in the context of what is true)...hopes & endures — all things.

It's a portrait of perfect love — it's the God-given rebuke to all of us who assume we're overflowing with love. While there is genuine love at work among us — we must know the priority of love, feel the rebuke in Paul's portrait & Know the enduring power of love to drive us to re-centre our lives on Christ

The Permanence of Love (8-13)

V8, 'Love never ends. As for prophecies, they will pass away; as for tongues, they will cease; as for knowledge, it will pass away. For we know in part and we prophesy in part, but when the perfect comes, the partial will pass away.'

Here, Paul stresses the permanence of love alongside three gifts 'prophecy,' 'tongues,' & 'knowledge,'. We understand these 3 gifts broadly as having a function of 'revelation.'

때로는 우리가 쉽게 화를 내 거나 짜증 난다는 이유로, 혹은 그 사람의 과거에 잘못된 행동에 앙심을 품고, 어떡해서든 다툼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용서는 하겠지만, 그 잘못을 결코 잊지는 않을 거야”...혹은 핑계를 대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짜증이 나서 그러는 거야”...이런 우리의 사랑 없는 모습을 때로는 자랑스러워하고 어떡해서든 이기는 것을 영광으로 삼는 게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과거 악행을 쌓아두지 않고 이를 악용하지 않습니다...6 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말씀하기를, 사랑은 진리 안에서 참음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며...진리를 믿는 것이며, 소망하며 견디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의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우리의 자만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알고, 이런 바울의 질책을 느끼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다시금 깨달아, 우리의 삶을 다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랑의 영속성 (8-13 절)

8-10 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예언, 방언, 그리고 지식이라는 세 은사의 비교를 통해 사랑의 영속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로 이 세 가지 은사가, 계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In contrast to love...at least knowledge & tongues were gifts that were being exercised without love....we know from chapter 8 that Paul said knowledge puffs up....there, it was obvious in the way they were sinning against those with a weak conscience that they weren't loving in their knowledge.

It's important to note that when Paul says 'knowledge' is passing away, he doesn't mean knowing God & all the glorious things we will know in eternity....obviously not as in v12 he says about that time, 'then I shall know fully'. By knowledge, Paul means the particular gift the 'utterance of knowledge' (12:8) that was a pronouncement to clarify some uncertainty...a gift for a season in our fallen world...

Paul deals with tongues & prophecy at length in the next chapter....14:10-11 indicates that the gift of tongues is the same gift the believers at Pentecost had received i.e. the supernatural ability to communicate the gospel in a foreign language.

Prophecy (chapter 14) is revelation from God applied to one or more persons — for a wider encouragement than the gift of a foreign tongue that the hearer couldn't understand. Now we might experience it when we hear the word preached & the Lord puts His finger on a particular area of our lives. Prophecy often had a future element to it as we see with the OT prophets. Luke also wrote about NT prophets in Acts 11 & 21 from Jerusalem...one of whom was Agabus who foretold a famine & also predicted that Paul would be bound.

But these gifts, unlike love will pass away. Hebrews 1:1-2 'Long ago, at many times and in many ways, God spoke to our fathers by the prophets, but in these last days He has spoken to us by His Son...' These verses make a contrast b/w the revelation of old & the revelation completed by the Son.

사랑과 반대로, 지식과 방언은 사랑 없이 행해졌던 은사였음을 보게 됩니다...우리가 8 장에서 봤듯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 (8:1), 이들은 이들의 지식을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데 사용함으로, 그들의 지식은 사랑 없는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식도 폐하리라”라고 말씀할 때, 이 폐할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영생 가운데 알게 될 영광스러운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이라 말함은, 특정한 은사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확실한 몇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 14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14:10-11 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방언은 오순절 날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은사와 같은 은사로서, 이는 복음을 외국어로 전달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4 장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로,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용기를 돋워 주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구약 선지자들의 사역과 같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포함했습니다. 누가 또한 사도행전 11 장과 21 장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에 대해 언급함을 보게 됩니다...그중 한 명은 “아가보”라는 선지자로, 앞으로 임할 기근에 대해 말씀했으며, 바울이 잡히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들은 폐하고 사라질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2 절에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옛 계시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계시의 대비를 보게 됩니다.

In that contrast, we understand that the supernatural manifestations of 'words of knowledge,' & tongues & prophecy in the sense of a direct, supernatural & authoritative revelation from God....were passing away with the Apostolic age, once the Canon of Scripture was completed.

Paul's analogy of himself as a child becoming a man is to make the point that what we experience now is as for children, partial & incomplete. But our future, where we will reach final maturity in Christ, will be where we are whole complete That is the great goal that will be the coming time of our glory...where there will be no shortage of love...

v13, 'So now faith, hope and love abide, these thre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Unlike the supernatural revelatory gifts, faith, hope & love have a permanence to them in this life...But in glory even faith & hope will be fulfilled... When we are before the Lord, faith will become sight & hope will be realized...In that sense, love is the greatest because it will remain into eternity

I'm not....Christ is...I can be

Substitute any name in this chapter in place of love....& what are we to conclude?

We're not nearly as loving as we often assume we are. Substitute Jesus Christ in place of love & what do we have? Love personified

Faith in Him gives us hope that we can be the loving people He gave His life for us to be...I'm not all that loving...but because Christ is....I can be.... In many ways we all lack love...but because Christ is....we all can be...increasingly so until the day where He will perfect us ... 1 John 4:19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그리고 이런 대비 가운데,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초자연적이면서, 권위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이 정경으로서 완성된 이후에는 사도 시대와 함께 폐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11 절에서, 어린 아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부분적이며,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숙을 이루게 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우리가 사랑에 부족함이 없음이, 앞으로 영광 가운데 오게 될 우리의 영광의 큰 목표입니다.

13 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초자연적 계시의 선물인 방언 그리고 예언과는 달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삶 가운데 영속적인 은사입니다...그러나 영화 가운데 믿음과 소망조차도 실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던 믿음은 현실이 되는 것이며, 소망하던 것은 성취될 것입니다...이런 맥락에서 사랑이 가장 위대함은, 영생 가운데 존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사랑.

오늘 13 장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우리 이름을 넣어 볼 때, 이를 통해 얻는 결론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에 한참 이르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대신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 넣는다면 어떤가요? 우리는 이런 사랑의 정의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 현실화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사랑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사랑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사랑이 부족합니다...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